노고할매와 함께 하늘정원 걷기

1. 목적 및 배경

○ 아고산생태계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국립공원 최초 생태복원지역인 노고단정상일대의 훼손과 복원과정을 알아봄으로써 자연보호의식을 일깨우고 공존을 위한 바람직한 태도를 배양하고자 한다.

2. 프로그램 운영 계획

○ 프로그램 분야 : 자연·경관 해설

○ 프로그램명 : 노고할매와 함께 하늘정원 걷기

○ 대　　상 : 제한 없음

○ 운영기간 : 3월~11월, 10시, 14시

○ 운영형태 : 1시간 30분/회

○ 장　　소 : 노고단 정상부

○ 주요내용 : 노고단의 훼손과 복원과정, 다양한 동·식물과 경관이야기

○ 소요예산 : 200만원

○ 참 가 비 : 무료

3. 홍보계획

○ 참가자 모집 : 포스터, 배너 등 제작하여 SNS 및 주요입구에 게시

○ 참가자 접수 방법 : 국립공원 통합예약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접수, 유선 접수

○ 사업성과 홍보 : 보도자료 제공, SNS 홍보 등

4. 평가계획

○ 만족도 조사 : 본사 주관 온라인 만족도 조사

○ 효과성 조사 :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피드백

첨부

1.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2. 현황사진

#첨부 1.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노고할매와 함께 하늘정원 걷기

노고할매와 함께 하늘정원 걷기 (당일)



운영장소 노고단 정상부 일원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노고단로1068-321)
참가대상 제한 없음.
운영시간 90분
참가비용 무료
신청방법 국립공원통합예약시스템, 현장예약, 전화문의 (061-780-7700)

환경부 인증 제2018-011(6)호

훼손의 아픔과 복원의 희망	**희망을 품은 노고단** 노고단 일원은 국립공원 최초의 생태복원 장소이며 고대부터 근·현대사에 이르는 다양한 이야기와 역사적 아픔을 보듬고 있는 장소이다. 역사의 흐름 속 노고단의 모습과 훼손 배경을 알아보고 복원과정의 어려움과 현재 상태를 알아봄으로써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책임 있는 탐방자세를 유도하고자 한다.
구름위의 하늘정원을 수놓는 야생화	**하늘정원을 수놓는 야생화와 야생동물 이야기** 아고산지대의 열악한 환경조건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당당한 삶의 에너지를 펼쳐 나가는 야생화와 구상나무 그리고 다양한 생명들의 생존방식을 알아보고 체험하여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지리산과 함께하는 우리	**지리산과 함께 하는 우리** 노고단 정상에 바라보는 장쾌한 주능선 감상을 통해 호연지기의 기상을 일깨워 보고, 정상부 돌탑에 얽힌 역사·문화 이야기를 통해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감하게 하는 시간을 갖는다.

대표프로그램

노고할매와 함께 하늘정원 걷기

활동장소	노고단 정상부 일원
소요시간	90분
참가대상	중·고생, 일반인
참가인원	30명/해설사

활동목표	• 노고단 정상부의 훼손과 복원과정을 통해 건강한 자연생태계의 중요성과 자연보전의 필요성을 고취시킨다.
준비물	• 카메라, 루페, 돋보기, 해설 교보재(노고단관련 역사·문화자료, 야생화 사진), 낱말카드, 야생화 책받침, 야생화엽서, 젠가, 응급처치키트 등
유의사항	• 운영에 앞서 반드시 안전스트레칭을 실시하고 참가 시 주의사항을 전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 자연훼손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며 참가자들이 자연과의 교감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만나기)	• 인사 – 참여자 및 국립공원과 지리산 소개 – 노고단 정상 탐방 시 유의사항 전달 – 안전교육	5분
전개 (노고단 정상 트레킹)	• 노고단의 변화과정 – 노고단의 소개 – 노고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변화과정 • 구름위의 하늘정원으로의 여행 – 회생_복원이야기 – 어울림_반야봉 이야기 – 기억_군부대 이야기 – 적응_노고단을 지키는 구상나무 – 변화_노고단의 관목(진달래와 철쭉) – 지킴이_대피소 이야기 – 회귀_노고단을 수놓은 야생화(계절별) – 공존_노고단에서 보는 전경 – 상생_지리산 종주능선과 봉우리 이야기	8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 **건강한 생태계의 중요성과 자연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5분

시나리오

노고단의 소개(노고단의 소개와 변화 과정)

노고단은 천왕봉, 반야봉과 함께 지리산의 3대 주요 봉우리로 높이는 해발 1,507m입니다. 노고단은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는 제단'이라는 뜻인데, 늙은 시어머니란 지리산의 산신을 지칭하지요. 앞에 그려진 캐릭터가 바로 지리산의 산신 노고할매랍니다.

노고단에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무렵, 외국인 선교사들이 여름 휴양지로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들은 노고단 정상부 일대에 약50여 동의 별장을 짓고 살았고, 1948년 여순사건 이후 빨치산들의 근거지가 된다는 이유로 별장들이 불태워지면서 노고단일대는 근대 역사 속에서 훼손이 가해졌습니다.

1980년대에는 천은사에서 반선까지 군사도로가 개설되면서 훼손되었고, 1988년에 천은사~반선 861지방도로 개통으로 노고단이 관광지화 되면서 훼손의 가속화로 이어졌습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자연적인 회생이 불가할 정도로 훼손을 입은 노고단 일원을 1991년부터 출입을 통제하고 훼손 복원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고단의 유래

회생_복원이야기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초원의 모습으로 변한 노고단이지만, 1991년대의 노고단정상부는 초원이 사라지고 식물이 거의 없는 벌거숭이 맨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원을 위한 첫 단계로, 경사진 곳을 계단 형으로 나무를 대어 경사를 완화했고, 그 위에 황마그물을 덮어 빗물에 식물들의 씨앗이 씻겨 내려가지 않게 했습니다. 황마그물은 땅속보온효과가 있으며 오랜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부식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천연그물망입니다.

옆쪽을 보시면 목재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죠? 복원과정 중 임의로 복원 시킨 장소와 비교하기 위해 설치한 자연적 복원 구간입니다.

자연적 복원을 유도하는 구간과 인위적 복원을 한 장소를 비교해보면 1991년 이후 28년이나 지났지만 거의 변화된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훼손된 자연이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기에는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노고단 일원의 경관적 복원은 이루어졌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생태계의 전반적 복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회복 진행중인 노고단을 위해서는 저희 공단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곳을 찾아주시는 탐방객 여러분들의 배려있는 탐방문화가 더해질 때 그 시기가 훨씬 앞당겨 질것이라고 봅니다.





자연복원지역

어울림_반야봉 이야기

여러분~ 저 쪽 산봉우리(반야봉)를 바라보세요.

반야봉이라는 봉우리인데 자세히 보면 어떤 모양을 닮고 있지요? 어떤 모양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신체부위 중 엉덩이와 닮아 '궁둥이산'이라고도 불리었다합니다. 또한, 반야봉은 해발 1,732m로 지리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산 주변의 어떤 산에서나 반야봉의 특이한 모습 때문에 지리산의 위치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반야봉에서 바라보는 일몰은 한낮의 창창하던 태양이 화려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조금씩 산 넘어 사라져 갈 때 인간의 모든 번뇌와 미움, 그리고 악한 감정과 세속에 찌든 마음을 정화시켜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반야낙조'라고 하고 지리산 10경 중 하나로 뽑았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지리산은 우리와 닮은 듯 우리가 지리산을 닮은 듯 서로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야봉



반야낙조

기억_군부대 이야기

저기 보이는 곳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부터 군부대가 있던 곳입니다. 상당기간 군부대가 주둔하여 오고가는 사람들에 의해 훼손이 가중된 장소였으나, 2007년 군부대가 철수하면서 빈 건물들을 철거하고 훼손지 복원 사업 시작으로 지금은 본래의 아고산 초원지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면적이지만 복원된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게 될 동·식물들을 생각해 보면 아주 좋은 일이겠죠.





적응_노고단을 지키는 구상나무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고유수종으로서 구상나무라고 합니다. 지리산 곳곳에 자라는 구상나무는 10~15m의 교목이지만, 이 나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또한 주변을 살펴보아도 이 구상나무보다 큰 나무는 없네요. 이유가 뭘까요?

노고단정상부는 다른 곳과는 다르게 특이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바람이 많이 붑니다.
둘째, 안개가 많이 낍니다.
셋째, 다른 곳 보다 비가 많이 오는 곳입니다.

이런 기후조건을 가진 곳을 '아고산지대'라고 하며 이 곳 노고단 정상부의 초원지대를 '아고산생태계'라고 부릅니다. 아고산생태계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산 노고단과 세석평전, 한라산과 덕유산 일부 등으로 생태계적으로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이런 초원지대는 기후변화 때문에 큰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야생화들도 짧은 시간 내에 종족번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지대의 야생화에 비해 색깔이 선명하고 또렷하게 피어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이 자리에서 90년 동안 이 자리에서 꿋꿋하게 살며 노고단의 변화를 지켜본 이 구상나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변화_노고단의 관목(진달래와 철쭉)

노고단 정상부에는 키 작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털진달래와 산철쭉인데요, 잎에 털이 있는 나무가 '털진달래'입니다. 바람이 많고 추운 날씨가 많은 노고단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털진달래는 잎에 털을 잔뜩 가지고 있답니다.

옆에 있는 식물도 한 번 살펴볼까요?
잎이 다섯 장씩 돌려났는데 이 나무는 산철쭉입니다. 이곳은 진달래와 철쭉이 비슷한 시기에 꽃을 피웁니다. 꽃이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진달래와 철쭉을 구분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진달래는 꽃이 먼저 피고, 철쭉은 잎과 같이 꽃을 피웁니다.
5월의 노고단은 연분홍 치마를 입고 화사하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꼭 봄에 다시 한 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진달래



철쭉

지킴_대피소 이야기

멀리 보이는 저곳은 여러분이 차로 올라왔던 성삼재 휴게소입니다. 예전에는 도로가 없어 화엄사에서 출발하여 화엄계곡을 타고 약 4시간 정도 걸어서 올라왔으나 지금은 도로가 있어서 수월하게 노고단을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까이 보이는 곳이 노고단대피소입니다. 대피소는 산행 시 잠도 자고 밥도 해먹고 기상이 안 좋을 때 잠시 대피하여 쉴 수 있는 장소로,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휴식과 안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종주능선에는 노고단대피소 외 8개의 대피소가 있으며 대피소를 이용하려면 인터넷으로 미리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고단대피소

회귀_노고단을 수놓은 야생화(계절에 따라 참고자료 준비)

이쪽에 빨갛게 피어 있는 야생화를 보세요. 풀의 잎을 비벼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어떤 냄새가 나나요? 내... 오이냄새가 나지요. 그래서 '산오이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산오이풀 주변을 보면 누군가 일부러 파헤친 흔적들이 있습니다. 멧돼지들이 남긴 흔적인데요.

많은 야생화들이 노고단에 다시 자리를 잡아 초원을 이루면서 여기를 떠났던 다양한 야생동물들도 함께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쩌면 이런 흔적들은 노고단이 과거 건강했던 모습으로 회복해 나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산오이풀



지리터리풀

공존_노고단에서 보는 전경

이곳은 지리산 주변을 볼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은 구례인데요, 구례지역을 휘감아 흐르는 물은 두꺼비 전설이 깃든 우리나라 5대 강에 속하는 섬진강입니다.

노고단을 중심으로 뻗어 내려가는 계곡들을 살펴볼까요?

아래쪽 보이는 계곡은 화엄계곡으로, 지리산 3대 사찰중 하나이며, 국보 4점 보물 8점을 보유하고 있는 화엄사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계곡은 문수사가 있는 '문수골'입니다. 문수골 옆 우뚝 솟아있는 봉우리는 모양새가 마치 큰 시루같다하여 '왕시루봉'이라고 하지요.

문수골 옆의 계곡은 가을단풍으로 유명한 피아골계곡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아골의 유래를 한국전쟁 당시 피를 많이 흘려 피아골이라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피아골 계곡아래 위치한 직전(稷田)마을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곡식 중 하나인 피(기장)를 많이 재배하여 불리어진 피밭 골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리산에는 수려한 자연생태계와 문화,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생명의 산입니다. 우리가 지켜왔던 지리산의 건강성과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곳을 찾아주시는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구례 전경



왕시루봉 방향

상생_지리산 종주능선과 봉우리 이야기

노고단 정상입니다.

신라시대에 화랑들이 수련을 하던 곳이었으며, 원래 봉우리 이름은 '길상봉'입니다. 정상에 있는 탑은 일신교 74명이 화엄사 계곡에서부터 돌을 가져다 쌓았다고 합니다.

사계절의 아름다운 지리산 경치를 가장 쉽게 감상 하실 수 있는 곳으로 봄의 철쭉과 진달래, 여름의 원추리,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안내판을 보시면서 지리산 종주를 할 때 만나는 장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종주는 성삼재에서 출발, 노고단을 지나 돼지령, 정유재란 시 임걸의 본거지였던 임걸령 샘터가 있습니다. 임걸령샘터는 사계절 내내 마르지 않아 종주 시에 이 샘에서 꼭 물을 보충해 가곤 합니다.

임걸령을 지나 노루목삼거리에서 반야봉으로 올라 갈 수 있으며, 직진하여 가다보면 전남, 전북, 경남의 경계인 삼도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삼도봉을 지나 내려가다 만나는 화개재는 뱀사골계곡과 만나는 지점이며, 다시 힘겹게 올라 만나는 토끼봉을 뒤로하고 도착한 연하천대피소는 마치 개울의 물줄기가 구름 속에서 흐르고 있는 것 같다하여 지어진 이름입니다.

연하천대피소에서 피로를 녹이고 다시 출발.. 형제봉을 지나면 벽소령대피소에 도착하는데, 밤에 떠오르는 달빛이 너무나 희고 맑아서 푸르게 보인다는 '벽소명월의 지리산 10경에 속합니다.

잔돌이 많은 평야와 같다는 세석평전의 세석대피소를 지나 촛대봉, 연하봉을 지나면 곡식과 생선, 소금을 교환하는 장이 섰다는 장터목대피소에 도달합니다. 잠시 한숨 쉬고 출발하여 제복봉을 지나면 지리산의 최고봉 천왕봉에 오릅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천왕일출, 1월 첫해를 여기

서 보면 그 장엄함에 모든 분들이 수연해지기도 합니다.

천왕봉을 지나서 대원사나 중산리 백무동방향으로 하산을 하시면 지리산종주를 마치게 됩니다.
종주 준비 시 날씨, 탐방로가 서로 잘 맞아야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지요. 먼저 자기 체력을 체크 후 날씨를 확인하고 탐방로에 통제기간인지 꼭 확인해서 준비해야 실패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노고단정상 돌탑



정상에서 바라본 천왕봉 방향

마무리_느낌 및 이야기 나누기

오늘 노고단의 역사와 자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람에 의해 한번 파괴된 자연은 수많은 세월이 흘러야만 회생합니다.
무관심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소중한 자연에게 또는 소중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자연은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평화로운 상태에 이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안정된 상태의 자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노고단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더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첨부 2. 현황사진



